

중보기도 Intercession Prayer

- 새벽 제단의 부흥을 위하여
- 국내/해외 선교지와 사역자의 안전을 위하여
- 2017년도 세워진 직분자/일꾼들을 위하여
- 디모데 프로젝트 - 제자훈련을 위하여
- 하나님의 VIP를 위하여
- 이웃초청잔치: Love Tacoma를 위하여(5/20)
- VBS 사역을 위하여(6/27-7/1)
- 1년에 마스터하는 "성경 66권 파노라마"를 위하여
- 청춘 시니어 대학 봄학기를 위하여
- 작은교회 살리기(포도나무교회 - 김명신 목사/ 아름다운교회-팀황 목사) 위하여
- 이번주 지역교회 중보기도: 타코마한인장로교회-박창호 목사

국내/해외 선교 Home/Overseas Mission

국내/해외 선교 지역

- ▶ 동아시아 50개 처소교회
- ▶ 밀알선교단
- ▶ 방송 선교지원
- ▶ 노숙자 동지 선교회
- ▶ 아프리카 우물파기
- ▶ 이완구 장학사업
- ▶ 사론센터
- ▶ 한국선원 선교회
- ▶ 소울싱어즈
- ▶ 작은교회 살리기
- ▶ 오병이어의 기적 M52

- ▶ 베네수엘라(정경석)
- ▶ 니카라과(전구/한미경/헤밀턴)
- ▶ 도미니카 아이티(최기철/Vilcaive)
- ▶ 우크라이나(박철규/김경희)
- ▶ 잠비아(Emile)
- ▶ 말레이시아(고인섭, 권민정)
- ▶ 터키(이성숙/자수아)
- ▶ 슬로바키아(서일원/조정선)
- ▶ 의료사역 Healing 153
- ▶ 아시안 암 환우회

기독교 기관 선교

- ▶ 미주 남침례회 SBC
- ▶ 북미주 한인침례총회 KCNA
- ▶ 서북미 한인침례회 협의회
- ▶ 한인국내선교부
- ▶ 한인해외선교부
- ▶ 남침례교 직영 6대 신학교
- ▶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섬기는 사람들 Serving Staff

| | | | |
|---------------------------|----------------------|---------|--|
| 담임 목사 | 최성은 | 원로 목사 | 문창선 |
| 수석 부목사(예루살렘/베들레헬) | 민철기/253-444-8853 | 은퇴 안수집사 | 이세진 정영길 좌저로 박종길 권태운 양태규 유성렬 함명호 김인도 오금철 마이클 갈빈 리차드 데드리지 데니 윌리암슨 |
| 한어권 공동체 목사(안디옥/필라델피아/시니어) | 유 훈/253-651-9152 | 시무 안수집사 | |
| 기도원/건물관리 목사 | 안광일/253-335-9101 | | |
| 영어부 목사 | 프랭크 토레스/253-921-9954 | 서무 | 명희터너 주영컬크우드 명숙헨리 |
| 어린이 사역 총괄 목사(빌립보/에베소) | 남공근/253-753-8310 | 관리 | |
| 행정 목사(유스&영어청년) | 안재훈/253-365-1105 | 반주자 | 유영숙 장신영 주사랑 윤지우 권수현 |
| 마더와이즈/유년부사역지원 | 최수진/615-516-0389 | 1부 지휘자 | 2,3부지휘자(음악디렉터) 김민희 채병관 하경희 통역 이한피 정혜원 |
| 영아/유치 사역 지원 | 남공민희/253-753-8312 | | |
| 심방전도사(예루살렘/베들레헬) | 봉숙오글/253-359-7869 | | |
| 심방전도사(빌립보/에베소) | 이은경/253-334-6234 | | |
| 협동 목사(사랑부) | 장영준/425-444-1669 | | |



fbcc 타코마제일침례교회
Tacoma First Baptist Church
1328 S. 84th ST, Tacoma, WA 98444
교회 253) 535-5803 Fax 253)535-2240 www.fbcc.org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진 세대를 연결하고 다른 민족들을 화합하고
교회와 세상 사이에 다리를 놓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령공동체이다.

비전선언문 Vision Statement

라디오방송설교: 매주일 오전 8:30-9:00, AM 1450Hz 코렘TV방송설교: 매주목요일 오전 8:10, 주일 오전 10:30

|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 | | 주일성경공부 Sunday Service | | |
|---------------------------|---------------|----------|--------------------------|--|----------------------|
| 장년부 | 1부 한어예배 | AM 07:55 | 장년(한어) | | AM 09:30 |
| 장년부 | 2부 영어예배 | AM 09:20 | Korean Adult | | |
| 장년부 | 3부 한어(통역) | AM 11:00 | 장년(영어) | | AM 11:00 |
| 한어청년 | Puren KCM | AM 11:00 | 영어청년 YAM | | PM 01:00 |
| 영어청년 | YAM | AM 11:00 | 한어청년 Puren KCM | | PM 01:15 |
| 학생부 | Youth | AM 11:00 | 학생부 Youth | | AM 09:30 |
| 유년부 | Children | AM 09:30 | 유년부 Children | | AM 11:00 |
| 유치부 | Preschool | AM 11:00 | 유치부 Preschool | | AM 09:20/11:00 |
| 사랑부(장애부) | Agape Class | AM 11:00 | 영아부 Nursery | | AM 08:00/09:20/11:00 |
| 수요일예배 Wednesday Service | | | 금요일 Friday | | |
| 장년한어 | Korean Adult | PM 07:00 | 한국학교 KLS | | PM 07:00 |
| 영어 | English Adult | PM 07:00 | 학생부 Youth | | PM 07:00 |
| 유년부 | AWANA | PM 06:45 | 영어청년부 YAM | | PM 07:30 |
| 유치부 | AWANA | PM 07:00 | | | |
| 토요일 Saturday | | | 새벽기도 Early Bird Prayer | | |
| 한어청지기모임 | | AM 07:30 | 한어/영어 KM/EM | | AM 06:00 |

제일 어린이 동산(Day Care)

1328 S. 84th ST, Tacoma
253) 535-9435

아름다운 기도원

28814 Mountain Hwy E, Graham
253) 847-2250

주일예배

Worship Servi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1부 예배 오전 07:55

인도: 유 훈 목사

3부 예배 오전 11:00

설교: 최성은 목사

| | |
|----------|--|
| * 경배와 찬양 | 1부 / 9장 “거룩 거룩 거룩” 3부 / TFBC 찬양팀 |
| * 교 독 문 | 1부 / 24번 시편 100편 3부 / 24번 시편 100편 |
| 기 도 | 1부 / 유성렬 안수집사 3부 / 광경성 집사 |
| 봉 헌 | 1부 /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 41장(1절) 3부 / 마더와이즈 수료자 “시선” & 거룩한 곳 |
| 성도의 교제 | 3부 / “야곱의 축복” |
| 공동체 소식 | |
| 성가대 찬양 | 1부 / “주님나라 이루게 하소서” 3부 / “주님나라 이루게 하소서” |
| * 성경 본문 | 요한계시록 19:7-10 |
| 말씀 선포 | 2017년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시리즈 5.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 예수 그리스도” |
| 응답 찬송 | 1부 / “마라나타” 3부 / “마라나타” |
| 축도 | |

이달의 말씀 Word of the month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지난 주일 설교 Last Sunday Sermon

[2017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시리즈 (4)]

□제 목: 사랑이 이깁니다 □본 문: 요한일서 4:7-12; 요한복음 3:16

한국 행 비행기 안에서 하버드에서 박사를 마치고, 한국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한지 3년이 된 J라는 교수를 만났다. 이 J 박사는 철저한 진화론 자이다. 그 제이 박사와 저는 진화론을 기반으로 한 인간 중심 대 창조론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중심의 대화를 2시간 가량 더 이어 나갔다. 나는 이런 질문을 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될 것 같나? 그분은 한참을 생각한 후에 [잘 모르겠다] 고 솔직하게 답변을 했다. 제가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인정 하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했다. 그래서 그러면 인간을 세상의 중심으로 하는 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죽음에 대하여, 또한 사후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냐고 했다. 최선은 다하지만 답은 못 찾았다고 했다. 진화론이나, 빅뱅설 같은 것을 통해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은 설명하지만 인간의 종말이나 죽음 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시작은 알지만, 끝을 모르는 것은 사실 시작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기독교는 우주의 기원과 인간 그리고 죄, 타락, 그리고 심판과 구원, 영원, 모든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종교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죽을 후에 세상이 없다고 믿지만, 만약 죽을 후에 세상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냐고 물었다. 제이 박사는 자기는 나름대로 구원에 대하여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나고 물었더니 [자신은 착하게 살면 그것이 구원의 기준이다] 고 믿는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 착하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착하다는 기준도 문화에 따라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되어서 그 기준이 너무 애매 모호 하다고 했다. 또 질문을 했다. [제이 형제님, 당신은 최 절단의 과학과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했다] 그분은 [행복]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라, 바로 [사랑] 이라고 말해 주면서, 나는 나를 만들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을 섬길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했다. 과학은 좋은 것이지만, 과학의 기능으로는 사랑을 설명할 수 없고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목사인 저나 박사인 형제님이나 다 죄인입니다. 에덴 동산의 죄를 부인하셔도, 오늘 선택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차별 하지 않으시면서도, 다른 종교와는 차별적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그렇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어떤 방법이나 하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으로 그 사랑을 대신 하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의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오늘 요일 4:7-9 말씀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과연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

1889년부터 1910년 까지 126명의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남도에 오게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무려 146개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당시 부산 지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던 선교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스코트랜드 출신이면서 호주에서 호 주청년 선교단의 파송 받은 제임스 매켄지 선교사다. 그는 1910년 2월 21일 부산에 도착 하자 부산에 있는 수 많은 한센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나병환자 사역을 시작 하였다. 그는 상애원이라는 곳에서 무려 27년간이나 나환자들을 돌보며 그들의 친구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환자들의 치료책을 마련하고 사랑물을 현저히 줄였다. [내가 이 사역을 물려줄 아들이 없어서 가슴이 아프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 사인 그의 두 딸을 625 전쟁 중에 한국으로 보내서 부산에 유명한 일신 병원을 설립하게 한다. 매켄지 선교사님의 두 딸이 은퇴할 무렵 이 병원에서는 일년에 약 6천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매일 평균 300명 이상의 외래 환자가 치료를 받는 병원이 되어 일약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가 되었다.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이 매켄지 선교사님의 사역에 큰 영향을 받았다. 특히 나환자들의 피 고름을 임으로 빨아 내어 치료하는 서양 선교사님의 모습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손양원 목사님 역시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나환자 사역을 시작했다. .25 전쟁 직전 1948년 여수 반란 사건 때,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은 공산 청년들에 의해 총살을 당한다. 손 목사님은 결국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자기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안재선을 오히려 자신의 양 아들로 삼는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 시킨다. 손 목사님은 6.25 전쟁 중에 애양원에 남아 있다가 결국 공산군에 의해 두 아들이처럼 순교하게 된다. 선교사님들이 병이 들어 타국에서 아내를 잃고, 자녀를 잃고, 주기철 목사님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못을 박아 놓은 바다를 맨발로 걸어가며 피를 흘리고, 감옥에서 결국 순교를 하고, 손양원 목사님과 그의 두 아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으로 생각 할 수도 있다. 매 순간 약이 힘이 더 세보이고 커 보이는 약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랑의 싸움은 절대 그렇게 끝이 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된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진 이 사건은 놀랍게도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현재도 끊임없이 다른 사랑을 낳고 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 사랑과 헌신의 이야기는 결국 사랑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 준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고 나타내 주셨고 그의 제자들은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오래 전 선교사님들과 우리 나라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아직도 살아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음을 체험하였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그 사랑을 보여 주시고자 이 땅에서 오셔서 그것을 보여 주신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의 소망이다.

사랑하는 타코마 제일 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유례없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또한 구치소에 구속되었다. 정상적으로라면 1년의 임기를 다 채우는 시점에서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어야 하겠지만, 탄핵 때문에 조기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후보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대통령이 속했던 여당이 내분을 겪게 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과거의 야당이 힘을 얻는 결과도 낳게 되었다. 이제는 현재 다섯 명의 후보 중에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 결정의 시간이 채 열흘도 남지 않았다. 각 후보들의 공약에 관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데, TV 토론 여론 조사에 많은 비중을 주어, 매스컴에서 여론을 조장하는 것이 아쉽다.

현재 한국은 내부 정치적인 상황 이외에도, 주변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에 둘러 싸여 있고, 북한은 연일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고자 사드배치를 하면서, 10조원을 한국 정부에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현재의 내 외부의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상황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미국에 살아가는 이민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

1910년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하여 침탈을 당한 치욕적인 해이다. 이 만행에 항쟁하고자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한 민족은 평화 만세 운동을 일으켰다. 근 1년 가까이 지속된 이 평화 저항 운동에 60만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 했는데,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고,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수감된 자가 9천 명에 달했다. 그런데 그 중에 22.4% 가 기독교인으로 가장 많았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과 독립 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은 15명을 포함해 총 48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무려 23명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 한반도 전체 인구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1.5%가 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3.1 만세운동이나,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이 주를 이루었다. 일제시대의 초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했던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중에 기독교 인구가 천만이라는 보고서가 얼마 전에 보도 되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했다. 남한의 전체 인구 중에 20%가 여전히 기독교인이며, 국회의원 중에 33%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그러나 일제시대 때 한반도 전체의 1.5%의 적은 기독교 인구로도,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지도력과 영향력을 사회 전반에 준 것을 비교한다면, 우리는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해야 한다.

구한말 시대에 교회는 조선의 마지막 남은 소망이었다. 지금 다시 그런 위기가 한반도에 왔다. 지금도 여전히 한반도에는 교회만이, 그리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이제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 앞에 한반도를 올려 드리며,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실수 있도록.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안에서 여러분을 축복 합니다.

주안에서

수요찬양예배

Praise Service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수요일 저녁 7시

인도: 유 훈 목사

찬양과기도 찬 양 팀

기도 성원로 집사

제목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기록하라"

성경본문 레위기 11:44-45

말씀선포 최성은 목사



봉사위원 Volunteer

| | 이번 주 | 다음 주 |
|----------------|---|---|
| 기도 Prayer | 1부 유성렬 안수집사 연합 광경성 집사 수요 성원로 집사 | 1부 영분엘리엇 집사 3부 권경수 집사 수요 미나리베라 집사 |
| 보육 | 영아 이광연, 이유연 유치 이창경, 이은정 | 영아 로시토광숙, 이유진 유치 이진우, 이명순 |
| 주차장 Parking | 권경수, 임성남(2부) EM (3부) | 권태운, 이광우(2부) EM (3부) |
| 예배위원 Usher | 안내: (1부) 박선영, 이정엽 (3부) 백동선, 이재찬, 박순덕, 이순컬리섹, 철옥핀서, 김정숙, 정수잔선, 전영숙 헌금: (1부) 김영숙, 인자깁 (3부) 이재찬, 백남현, 백동선, 엄기추, 이성호, 광경성, 이호영 | |
| 주일오찬 봉사 | 4/30 필라델피아 공동체 박정희 마을, 예루살렘 공동체 인숙탱 마을 5/07 베들레헴 공동체 영분엘리엇 마을, 필라델피아 공동체 오금철 마을 5/14 에베소 공동체 진데드릿지 마을, 안디옥 공동체 김성진 마을 | |

사역스케줄 Ministry Calendar *일부 사역은 교회 및 부서 사역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2017년 5월 | | 2017년 6월 | |
|----------|---------------------|--------------|-----------------|
| 5(금) | Pierce County 조찬기도회 | 2(금)-4(주일) | 부흥회 |
| 6(토) | 헌아식 교육 | 7(수) | 어와나 졸업식 |
| 7(주일) | 제직회 | 12(월)-15(목) | 침례교 총회 |
| 14(주일) | 어머니주일 연합예배(헌아식) | 17(토) | VBS Prayer Walk |
| 19(금) | 시니어 공동체 모임 | 24(토) | VBS Block Party |
| 27(토) | 봄맞이 대청소 | 25(주일) | 사무처리회 |
| | | 27(화)-7/1(토) | VBS |

공동체 소식

Announcement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저희 교회를 방문/등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성도들은 하나님 VIP 10주 과정(년 4회 개강)을 필히 마쳐야 하며,
 과정을 마친 성도는 의무적으로 예수마을 공동체(소그룹 모임)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예배에 생명을 다하는 교회시리즈** CD 세트가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세트당 \$10)
- 내가 쓰는 사도행전 29장:** 교회 안/밖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 기도도 준비하여 작성서를 적극 활용 바랍니다.(교회 안 대상자들에게 **주일/수요예배, 장기 결석자, 마을모임, 성경공부**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교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전도 회원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순수입: \$7,667.56 (바자회 총판매금: \$9,180.00 - 재료비, 도네이션 포함: \$1,512.44)
 ※ 수익금은 여름 단기 선교 및 선교대회에 사용됩니다.
- 피어스 카운티 조찬 기도회:** 5/5(금) 오전 6:30
- 한어권 헌아식 교육:** 5/6(토) 오후 1시. N-209. 자녀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키우기로 작정 하시는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중 헌아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 영어권 헌아식 교육:** 5/6(토) 오전 10시. N-113(프랭크 토레스 목사 사무실)
- 제직회:** 5/7(주일) 오후 3시. 2/4분기 재정보고.
- 제 21회 워싱턴 성가합창제 :** 5/7(주일) 오후 5:30.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 러브 타코마:** 6월에 예정된 전도 대상자 및 기존 새가족을 위한 이웃초청잔치 '러브타코마'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내가 쓰는 사도행전 29장을 삶에 적용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VBS(6/27-7/1) 봉사자 모집:** 섬겨주실 분은 로비에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역(Administration Ministry) ◆

- ◇ 최근 타코마에 유입되는 **이단(신천지, 안산흥, 구원과 등)**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교회가 속한 남침례교단은 **인터넷, 아이함, 신사도운동**과 신학적 교류를 금지하였습니다.
- ◇ **본당에 음식물, 음료, 커피 반입**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물은 제외)
- ◇ **구인/구직 광고** 등 주보에 올리지 못하는 광고들은 사무실 확인 후, 체유관 게시판에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차 및 차량 안내**
 1. 장애인, 방문자, 예약석 공간에 성도들은 주차를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역자, 직원, 종직/제직들은 B(서쪽) 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교회 내에서 안전을 위해 규정 속도(5mph)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차장 근처에서 자녀들이 놀지 않도록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교우동정(Compassion) ◆

- ◇ **새가족** 신용장 가족(인터넷 설교), 심충보 가족
- ◇ **출산** 리안, 조안(남궁근목사, 민희사모) 딸
- ◇ **결혼** 제니(래리, 경란라인힐드 성도 딸) 5/6(토)
- ◇ **중보** 비너브래들리, 민정위드맨, 에릭모스, 스티븐 켈리, 인덕랩시, 댄포워드, 한명이 로즈베렛(금남베렛 딸), 한명이, 마이클가너, 릭달라, 양행심, 파예요크, 미아길더
- ◇ **파병** John Hendershot, 조세훈

■ ■ ■ 드려진 예물 Last week Offering

| | | | |
|----|-----|--------------------|------------------------------|
| 주일 | 금주 | 김광호,혜영(Retire,생일) | ※ 기념일을 맞아 주일오찬(주일오찬비용:\$300) |
| 오찬 | 다음주 | 정순애(생일),민철기(결혼기념일) | 으로 섬기실 분들은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17년 전교인 천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
 주차장 및 배수관 공사를 위한 작성서를 작성하여 로비에 비치된 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헌금시 **한그루 나무심기 봉투(녹색)**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전교인 천그루 나무심기 운동에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 1,000그루/\$1,200,000 (한 그루당 \$1,200) 현 작성현황: 770그루/\$924,000
 현 현금액: 857,334.06